# KPGA KLPGA 올 상금왕은?

미국프로골프 투어는 시즌을 마쳤지만 국내외 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들의 경기는 계속된다. 국내 남녀 프로골프는 1년 내내 치열하게 전개돼온 시즌 상금왕 경쟁에 마침표를 이번 주말에 찍는다.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언투어는 시즌 마지막 대회인 하나투어-몽베르 챔피언십을 9일부터 나흘 간 개최한다.

각오도 만만치 않다.

중국 상하이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유럽프로골프 투어 HSBC챔피언스도 놓칠 수 없는 경기.

PGA 투어 시즌 막판을 화려하게 장식한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출전하는데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무려 40일만에 경기에 나선다.

## KPGA - 1위 신용진, 강경남 보다 19만원 앞서

## KLPGA - 신지애 독주 속 스타투어 4차전 관건

19만원 차이로 상금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신용진(42·LG패션)과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이 이 대회에서 상금왕의 주인을 가리게 된다.

여자프로골프는 우승 상금 1억2천500만원 짜리 초특급 대회인 KB 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전을 9일부터 4라운드로 치른다.

2위 박희영(19·이수건설)을 넉넉하게 앞서고 있는 신지애(18·하이마트)가 우승하면 사실상 상금왕 경쟁이 끝나지만 마지막 역전 기회를 맞은 박희영의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에서는 최근 3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할 수 있는 '왕중왕전' 미첼컴퍼니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가 9일 밤부터 열린다.

출전 선수 42명 가운데 한국 선수가 무려 15명에 이른다.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대회인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을 제패해 신데렐라로 떠오른 홍진주(23·이동수패션)도 내년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앞두고 전초전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시안게임 金 향한 체력훈련** 하승진과 이규섭 등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남자농구 대표팀이 7일 태릉선수촌에 소집돼 웨이트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동규, 니혼햄전 선발 출격

## 삼성, 내일 코나미컵 1차전

한국프로야구 챔피언인 삼성 라이온즈의 '포크볼러' 임동규(27·사진)가 9일 오후 6시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지는 제2회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1차전 니혼햄 파이터스전에서 선발 투수로 출격한다.

선동열 삼성 감독은 7일 일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일본전에 애초 예정됐던 전병호 대신 임동규를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8승7패, 평균자책점 3.91을 남긴 임동규는 빠른 볼은 없지만 제구력이 안정됐고 특히 일본 투수들이 잘 던지는 포크볼을 잘 구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선 감독은 "대구에서 팀 훈련을 마치고서야 선발 로테이션을 정했다. 일본과 1차전에는 임동규가 나가고 전병호는 10일 중국전, 11일 대만 라뉴 베어스전에는 제이미 브라운이 등판한다. 결승에 진출하면 12일에는 팀 하리칼라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선 감독은 전력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 라뉴 베어스전을 앞두고 브라운과 임창용을 놓고 선발을 저울질했으나 브라운의 컨디션이 더 좋다고 판단, 중책을 맡겼다.

이에맞선 니혼햄은 일본 언론에 따르면 9일 삼성전에는 12승을 거둔 괴물 신인 좌완 투수 야기 도모야를, 결승전에 진출하면 '제2의 마쓰자카'라는 우완 강속구 투수 다르빗슈 유를 선발 투수로 기용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 선수단은 7일 일본 도쿄에 도착, 숙소인 도쿄돔호텔로 곧바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다. 선수단은 이날 훈련 없이 저녁 호텔 내 지하 1층 텐쿠룸에서 열리는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연세대 우승

## 전국대학농구 2차 연맹전

연세대가 제43회 전국대학농구 연맹전 2차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연세대는 7일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결선리그 최종일 동국대와 경기에서 84-70으로 넉넉한 승리를 거두고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중앙대에 극적인 2점차 역전승을 거두며 공동 우승을 확보했던 연세대는 이날 초반부터 동국대를 거세게 몰아붙여 단독 우승을 확정지었다.

연세대는 1쿼터 11-6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도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들인 양희종과 김태술이 연속 3점포를 꽂아 17-6으로 달아나며 편한 승부를 예고했다.

동국대는 2쿼터 3분여를 남기고 기승호의 중거리슛으로 34-36까지 따라붙었으나 연세대는 곧이어 김태술의 중거리슛, 송수인의 3점포, 유희선의 2점 등을 보태 43-34로 전반을 마쳤다.

3쿼터에서도 동국대를 몰아붙인 연세대는 57-42로 앞서던 3쿼터 종료 3분여를 남기고부터 이광재와 양희종이 연달아 3점슛을 성공시키는 등 67-50으로 끝내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연세대는 지난 해 10월 2차 연맹전 공동 우승 이후 1년여만에 대학무대 정상을 밟았고, 단독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05년 4월 MBC배 대회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호랑이'들 요가 훈련** '피터팬' 한기주(19·KIA)가 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내 실내훈련장에서 열린 요가훈련 프로그램에 참가, 지친 심신을 풀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 프로야구 스토브리그 본격 돌입…KIA 김종국 등 12명 공시

내년 시즌 전력보강을 위한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전병호, 진갑용,김재걸(이상 삼성), 권준헌, 차명주(이상 한화), 김수경(현대), 김종국(KIA), 박명환(두산), 김원형, 박경완(이상 SK), 노장진(롯데), 이병규(LG) 등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신청한 12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올 겨울 FA 대상 선수는 총 20명이었지만 이미 두산과 재계약한 안경현을 비롯해 정민철(한화), 염종석, 주형광, 박지철, 박현승(이상 롯데), 이종열, 최상덕(이상 LG) 등은 사실상 잔류의사 표시로 FA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올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이병규와 박명환 등은 이날 KBO으로부터 공시됨에 따라 먼저 17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원 소속구단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12월7일까지 소속팀을 제외한 7개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또 12월8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는 8개 구단 모두와 교섭을 가질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1년간 국내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스포츠중계

8일(수)

▲FIVB 세계 여자배구 선수권〈한국-세르비아〉(10 : 50·Xports)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한양대-성균관대〉(14 : 00·KBSN SPORTS)

▲FA컵 축구〈국민은행-삼성〉(16 : 00·KBSN SPORTS), 〈인천-전남〉(19 : 00·KBSN SPORTS)

▲프로농구〈LG-SK〉(18 : 50·Xports, SBS스포츠)

9일(목)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알카라마-전북〉(01 : 50·SBS스포츠, Xports)

▲칼링컵 축구〈토트넘-포트 베일〉(04 : 50·KBSN SPORTS)